



평화누리길 걷기·자전거 투어 내달 임진적벽길서 개최

경기도와 연천군은 봄맞이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with 자전거투어’를 오는 4월 임진적벽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 4개 시·군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경기도 최북단 명품 트레킹 코스다. 임진강과 주상절리 등 DMZ 접경지역 특유의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어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걷기행사는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에서 다음달 22일 개최된다.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해 주상절리를 지나 동이리와 금굴산을 거쳐 돌아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로 임진강 독방길 따라 핀벚꽃과 화산분출로 형성된 거대한 주상절리 등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투어는 다음달 29일 임진적벽길에서 개최된다. 임진물새롬랜드에서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19km 코스로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고적한 임진강변 독길을 따라 달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에는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인 배우 박철민씨가 동행해 참가자들과 함께 포토 타임 시간도 갖는다.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alkyourdmz.com)로 하면 되는데 걷기행사는 선착순 1300명, 자전거투어는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6.0 X 20.7 cm

내달 ‘평화누리길 걷기·자전거 투어’ 신청받아

경기도와 연천군, 경기관광공사는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걸어보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with 자전거투어’를 오는 4월 연천군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천 평화누리길 11코스 ‘임진적벽길’을 걷는 행사는 4월 22일

임진물새롬랜드를 출발해 주상절리를 지나 동이리와 금굴산을 거쳐 돌아오는 10.5km의 순환형 코스다. 이어 같은 달 29일 열리는 자전거투어는 임진물새롬랜드에서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군남홍

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19km 코스다.

‘평화누리길’은 DMZ 접경지 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 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구성된 경기도 최북단 명품 트레킹 코스다.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서 하면 된다. 모집은 걷기행사 선착순 1300명, 자전거투어 선착순 300명이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9.5 X 8.0 cm

